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환자에서 이식 직후에 발생한 원인 불명의 결절성사구체경화증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해운대백병원

박봉수, 진규복, 박시형, 강정선, 전유선, 홍현정, 김양욱

Idiopathic Nodular Glomerulosclerosis in a Kidney Transplant Recipient

Bong Soo Park, Kyubok Jin, Sihyung Park, Jounghsun Kang
Yuson Jeon, Hyunjung Hong, Yang Wook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Inje University Haeundae Paik Hospital, Busan, Korea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이식을 시행한 경우, 거의 모든 환자의 이식신에서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고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식 후 1년 이내에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결절성사구체경화증(Nodular glomerulosclerosis)은 당뇨병성 신장병증의 특징적인 병리 소견으로, Takayasu 동맥염, 아밀로이드증, 경쇄침착질환 등에 의해서도 드물게 발생할 수도 있다. 당뇨나 전신적인 질환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결절성사구체경화증을 원인 불명의(idiopathic) 결절성사구체경화증이라 하며 아주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2형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을 받은 32세 남자에서 이식 6개월 후에 발생한 결절성사구체경화증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2012년 5월부터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인한 말기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시작하였고, 2013.1월 당뇨병력이 없는 공여자로 부터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 후 외래 관찰 중이었다. 이식 6개월 후 단백뇨 발생 및 신기능의 악화로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결절성사구체경화증으로 진단되었다.

Key Words: 결절성 사구체경화증, 신장이식, 혈액형 불일치

Nodular glomerulosclerosis, Kidney transplant, ABO-incompatible